

**2027 문학 연계
원문+기출 1권**

길	p.4	나비와 광장 / 민들레꽃	p.100
고을사 / 꾀꿀꾀꿀 / 농부를	p.7	그 방을 생각하며 / 달밤	p.101
징소리	p.8	눈 오는 날에 / 유등제	p.105
임진록	p.17	포스터 속의 / 대설주의보	p.107
길삼봉면	p.44	그 여름의 끝 / 그 나무	p.109
울정설	p.47	원시 / 차심	p.110
하나씩의 별	p.50	면면함에 대하여 / 머느리밥풀꽃	p.111
카인의 후예	p.52	포천이문	p.113
고향	p.55	왕수재취득용녀설	p.117
원가 / 진중음	p.58	서해무릉기	p.121
만전춘별사 / 내 영혼 / 창밖에	p.59	반씨전	p.139
월곡답가	p.62	현몽쌍룡기	p.152
두류산 / 요일월 / 대장부	p.63	대관재몽유록	p.155
눈 맞아 / 연못에 / 임으란	p.64	금방울전	p.157
면양정가	p.65	적벽가	p.179
사친가	p.75	웅고집전	p.183
속사미인곡	p.80	옥단춘전	p.195
몽금포 티령 / 어부별곡	p.82	김순부전	p.212
유산가 / 백석정별곡	p.84		
성패관천운 / 정처관군동	p.91		
빼앗긴 들에도 / 초토의 시 1	p.92		
오월 소식 / 와사등	p.94		
연륜 / 정릉 살면서	p.97		
꽃 / 누룩	p.99		

길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왯가왯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요.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관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바이: 전허

◀ 보기 ▶

시적 표현은 리듬감을 다양하게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특히 시행의 배치와 연 구분 등의 요소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시 전체의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고전 시가와 달리, 현대시의 리듬은 반복이나 다양한 변주 등을 통해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이 작품은 호흡의 속도와 길이 등을 조절하는 율격을 기반으로 하고 종결 표현을 다양화하는 등의 요소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단어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도 찾아볼 수 있다.

◀ 보기 ▶

‘길’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 다니는 보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인생이나 운명의 행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혹은 인간의 도리나 종교적 진리를 뜻하는 관념적인 단어로도 쓰인다. 이 작품에서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으로서, 일제 강점기의 고단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며 고향에는 가지 못하는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표상한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적막강산

백석

오이발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술발에 띄꾸기 소리
잔술발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벌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늙은 장끼.

(다) 단가 육장

이신의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랜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꿀일까 하노라 <6장>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들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14.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 ② '오라는 곳'이 없음.
-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음.

1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1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광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간적 성격을 띤다.
-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7.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 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1	14	④	2
2	④	2	15	④	2
3	④	2	16	⑤	2
4	①	2	17	②	2
5	⑤	2	18	③	2
6	②	2	19	②	2
7	④	2	20	①	2
8	①	2	21	④	2
9	⑤	2	22	④	2
10	③	3	23	④	3
11	③	2	24	①	1
12	⑤	2	25	②	2
13	①	2	26	②	2

징소리

문순태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처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댐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낚시꾼들을 쫓아냈다.

당실당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이의 모습은 나무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고향에 여섯 살 난 딸아이를 업고 불췌 바람처럼 나타난 그는, 물에 잠겨 버린 지 삼 년째가 되는 방울재 뒷동산 각시바위에 땃줄같이 앉아서는, 목이 터져라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대는가 하면, 혼자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오순도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중얼거리다가도, 불췌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찢어 보고, 창자가 등뼈에 달라붙도록 큰 소리로 웃어대고, 느닷없이 징을 두들기며 경중경중 도깨비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성질이 엄병을 얹아 귀머거리가 된 사람처럼 물렁해지고, 바보처럼 느물느물해진 거였다. 황소같이 힘이 세고 성깔이 확살스럽던 그는, 도깨비 춤추듯 징을 두들기다가도 방울재 사람들이 쫓아와서 한마디만 질러 대도 슬그머니 징채를 감추고 목을 움츠리는 거였다.

"덕칠아 봉구야, 싸게싸게 갈치배미 나락 베러 가자."

징 징 징..... 징 징 징.....

칠복이는 징을 치며 장성호(長城湖) 물이 넘칠넘칠 댁갈나무 밑동을 활아 대는 호숫가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가 징을 치고 경중거릴 때마다 졸래졸래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여섯 살 난 그의 딸이 징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 움쭉거렸다.

구름 한 가닥 없이 청명한 하늘에서는 명주실처럼 윤기 있는 늦가을의 햇볕이 선득선득 꽃혀 내리고 고속도로가 뻗고 산들이 빼꼼하게 트인 장성을 쪽으로 아슬히 보이는 댐 위에서부터 삼삼한 바람은 수면을 조리질하듯 천천히 훑어 올라왔다.

"덕칠이, 봉구, 팔만이 몽땅 뒤졌는거 살았는거?"

칠복이는 부릅뜬 눈으로 호수를 찢어 보며 계속 징을 치고 목청껏 방울재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다.

호숫가에 띄엄띄엄 한가하게 낚시줄을 드리운, 얼추 헤아려도 여남은 명이 넘을 것 같은 낚시꾼들은 난데없는 징소리에 벌떡벌떡 일어서서는 울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얼굴로 각시바위 쪽의 칠복이를 고나보았다.

징 징 징..... 징 징 징.....

마치 하늘 어느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때지어 울부짖는 소리와도 같은 징소리는 호수 안통 방울재 골짜기를 살살이 뒹군들었다.

"이봐, 빨리 꺼지지 못해?"

양바탕한 체구에 청이 길쭉한 빨간 운동모자를 비뚤룩하게 눌러쓴 낚시꾼 하나가 실박한 돌맹이를 집어 들고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를 치자, 칠복은 쩌째게 참나무 뒤로 몸을 피하고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내 다시 징채가 부러지도록 힘껏 휘둘러 댔다. 그때 징소리는 징징징 우는 것이 아니고 와글와글 사뭇 방울재 골짜기의 너털덩을 호수로 허물어 내리는 듯싶었다.

"저 미친놈이 끝내 뒹방이여!"

낚시꾼들 대여섯 명이 당장 칠복이를 잡아 물속에 처박을 기세로 각시바위 쪽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칠복이는 참나무를 끼고 이리 저리 피하며 잠시도 징채를 멈추지 않았다.

단숨에 칠복이를 붙잡지 못한 낚시꾼들은 더욱 화가 치밀어 썩거렸고, 칠복이는 칠복이대로 신이 나서, 딸아이마저 뺄까진 채 두레매 상식놀음 하듯 고개까지 까닥거리며 경중경중 뛰었다.

빨간 모자의 낚시꾼이 긴 작대기를 후려치는 바람에, 칠복이는 헉 외마디소리와 함께 아귀다복술 위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작대기에 허리를 얻어맞고 쓰러진 칠복이는 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슴에 꼭 안았다.

칠복이가 꼬꾸라지자 대여섯 명의 낚시꾼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발길로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품에서 징을 빼앗으려고 했으나 그는 솔가지에 얼굴을 묻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올린 채 고슴도치처럼 몸을 도사렸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징소리에 맞춰 강충대던 딸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리자, 그들은 비로소 발길질을 멎었다.

"미친 사람이니 용서해 줘쇼"

그때, 호숫가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낚시꾼이나 댐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술이며 매운탕을 끓여 파는 방울재 남자 셋이 허위허위 뛰어 올라와서 칠복이를 가로막아 서며 사정을 했다.

"아는 사람이우?"

낚시꾼이 물었다.

"한마을 사람이구면유."

검적검적 점이 많은 얼굴이 발그레하게 술이 오른, 삐쩍 마른 봉구는 연신 허리를 굽적거렸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우?"

"없어졌지라우."

"없어지다니 뭐가요?"

"방울재가 없어졌지라우. 몽땅 물에 쟁겨 뿌렸어유. 남은 것이라고는 저 뒷골 감나무뿐인갑네유."

봉구는 황새처럼 목을 길게 뽑아 그들이 서 있는 발부리 아래, 찰랑찰랑 허리가 물에 잠긴 채 빨강게 익어가고 있는 접시감나무를 가리켰다.

"그러면 우리가 낚시질하고 있는 여기가 바로 방울재라는 마을이었던 말이우?"

나이가 지긋하고 턱끝이 도깨비처럼 날카로운 낚시꾼이 흥미가 있다는 말투로 물었다.

"그렇구면유. 우리덜 지붕 위에도 낚시를 던지신 거나 마한가지지유."

"지붕 위에서 낚시질이라!"

빨간 모자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선생님들, 이 사람은 우리가 데려갑니다다요."

"다시는 여기 못 오게들 허쇼."

"염려 놓으십시오. 다리 모퉁이를 작신 분질러 놓겠으니께유."

방울재 사람들은 확살스럽게 칠복이의 어젯죽지를 잡아 일으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들린 사람처럼 경중대며 징을 두들기던 그 기세는 어디로 숨어 버렸는지, 그는 징을 가슴에 소중하게 두 팔로 꼭 껴안은 채 겁먹은 얼굴로 큰 눈을 뒤룩거렸다.

"미친 사람은 묶어 뒹야 합니다. 애잇 재수 없어!"

낚시꾼들은 방울재 사람들이 칠복이를 끌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다짐을 받고 나서 다시 낚시터에 앉았다.

울정설 백문보

윤 상군(尹相君)*이 일찍이 곤강(坤岡) 남쪽에 집터를 마련하였다. 집터 동서쪽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밤나무 정자’라는 뜻으로 ‘울정(栗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 또 조금 서쪽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하였다. 성안에 있는 주택에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드문데, 윤 공은 집을 사기만 하면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그가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이면 성근 가지가 꽃과 서로 어긋거리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으며, 가을 [A] 이면 밤이 맛이 들어 내 입에 가득 채울 만하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내 아궁이에 불을 댈다. 나는 이 때문에 밤나무를 선택한다.”

내가 말했다.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치 상 진실로 필연적인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바에 있어서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한가? 하늘과 땅 사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나고 자라고 피고 맺히는 데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이 제각각 다르다. 유독 밤은 만물 중에서 가장 늦게 난다. 나무를 심기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라기만 하면 쉽게 성장하며, 잎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쉽게 녹음을 이루며, 꽃이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쉽게 풍성해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열리지만 열리기만 하면 쉽게 거둘 수 있으니, 대개 사물이 이지러지고 채워지며 빠지고 더해지는 이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윤 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 나이 이미 서른이 넘었다.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늦었다고 하였으나 윤 공은 벼슬에 나아가 더욱 충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선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셨는데 크게 쓰이게 되어서는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승진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대개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풀과 나무의 뿌리가 흙에 묻혀 있을 때에 그 싹이 깊으면 그 갈라져 올라오는 것이 늦고, 갈라져 올라오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가득 차면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그 흐르는 것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물이 돌아 흐르고, 돌아 흐르면 못이 되어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반드시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나아가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듯이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윤 공의 영달은 곧 밤의 생장(生長)이고 밤을 거두어 간직함은 곧 윤 공이 은퇴하는 것이니, 그 생장함에는 세상을 돕는 도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삶을 수양하는 작용이 있다.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설(說)을 짓는다.

◀ 보기 ▶

선생님: 문학 작품에서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의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 삶의 이치라 할 수 있는 도(道)를 보여 주곤 하죠. 그런데 그 도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울정설」에서도 글쓴이는 밤나무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진다’는 역설적 이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이 이치를 ‘겸손’에 적용하면 어떤 역설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뜻합니다.

학생: ‘자신을 낮추면 ()’라는 역설이 성립됩니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홍이 겨워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리고
 반공(半空)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가을 칠월(秋七月)이 좋다 하되
 팔월 보름달을 모두 어찌 칭찬하고
 고운 구름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
 하늘에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謫仙)이 야단스럽구나
 공산(空山)에 쌓인 일을 삭풍(朔風)이 거둬 불어
 때구를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宮)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萬樹) 천림(千林)을 꾸며 내는구나
 앞 여울 가려 일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댄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가는 건가
 산옹(山翁)의 이 ㉠ 부귀(富貴)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썼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 소선 적벽: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 * 한기: 책.
- *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 ~ 썼었던가: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 말을 들은 자신의 귀를 썼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핑계하고: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면서 허유가 핑계하고.
- * 조장: 기계 있는 품행.

(나)

㉡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마라
 인생 백 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이내 것이
 백구(白駒)야 날지 마라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곡>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깃배 뗏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메고 십 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煙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곡>

- 권구, 「屏山육곡(屏山六曲)」-

-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다)

윤상군이 처음에 곤강 남쪽에 집터를 마련했다. 집터 동편과 서편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였으므로 거기예다가 정자를 짓고 **율정(栗亭)**이라고 이름했다. 그 후에 또 조금 서편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했다. 성안에 있는 집에서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적은데, 윤공은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 있는 곳을 선택했다.

그는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에는 잎이 무성하지 않아 가지 사이가 성글어서 그 사이로 꽃이 서로 비치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늘에서 놀 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밤이 먹을 만하며, 겨울이면 밤송이를 모아 아궁이에 불을 땔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밤나무를 좋아한다.”

나는 말한다. 불이 마른 것에 잘 불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이니 이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것이 같으면 물건이나 내가 다룰 것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풀이나 나무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어려운 것, 쉬운 것, 일찍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등 가지각색인데, 오직 이 밤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서 가장 늦게 나며, 재배하기도 어렵고 기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며,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준다. 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흐드러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밤나무는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차고 이지러지고 줄어들고 보태는 이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여 세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가 늦었다고 하였으나, 공은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했다. 그러다가 임금의 인정을 받아 등용되었는데,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밤나무와 같다. 그 기를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쉬웠으니, 이것은 밤나무의 꽃과 열매의 성질과 같은 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대개 식물의 씨앗이 흙에서 싹틀 때 깊으면 싹이 더디 터진다. 꼬투리가 터지면 곧 눈이 트고, 눈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차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된다. 그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물이 고이고, 고이면 못이 되었다가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장차 빨리 되려는 것이요, 멈추는 것은 장차 끝까지 도달하려는 것이니, 곧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있으며 부족한 것은 보탬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을 숭상하면 불을 닦고 물을 숭상하면 물을 닦으니 나와 숭상하는 사물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대가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생장함과 같으며, 밤을 수확하여 간직함은 그대의 은퇴하는 것과 같다. 그 생장함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자신의 양생의 작용이 있다. 이에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글을 짓는다.

- 백문보, 「율정설(栗亭說)」-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소 먹이는 아이들'의 피리 소리를 듣고 '용'과 '학'을 떠올리며 강변에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 ② [B]: '팔월 보름달'을 '소선 적벽'의 내용과 비교하며 달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천공'이 '옥'으로 꽃을 만들어 '만수 천림'을 꾸민 것 같다고 표현하며 눈 내린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④ [D]: '늪은 중'이 가 버린 것에 아쉬워하며 '은세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⑤ [E]: '성현'과 '호걸'을 생각하며 '시운'이 '일락배락'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과거를 극복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대상이다.
- ③ ㉠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은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25. 다음은 (다)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활동 과제: '나'가 말한 내용이 윤상군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가 말한 내용	활동 결과
불이 마른 것에 잘 불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	⇒ ㉠
밤나무는 늦게 나고, 기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 ㉡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 ㉢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가는 것.	⇒ ㉣
밤나무의 성장함과 밤을 수확하여 간직하는 것.	⇒ ㉤

- ① ㉠: 윤상군이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한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② ㉡: 윤상군이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간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③ ㉢: 늦게 벼슬에 오르기까지 윤상군이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임했다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④ ㉣: 등용된 윤상군이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⑤ ㉤: 윤상군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과 은퇴하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는 화자나 인물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곧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화자나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 ① (가)에서 고사를 인용하며 '늪은 고불'을 '조장'이 높은 인물로 보고 있는 화자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 세상의 일이 '구름'처럼 험하다면서 '술'로 '시름'을 잊겠다고 말하는 화자를 통해 속세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백구'에게 날지 말라고 말하며 함께 '망기'하고 싶다는 화자를 통해 자연물을 몰아일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삶의 터전인 '어촌'을 '무릉'에 비유하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를 통해 일상의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다)에서 정자의 이름을 '율정'이라 짓고 늘 자신의 행동을 경계하였음에도 등용이 늦었던 인물을 통해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1	4	2	5	3	4	4	2	5	2
6	5	7	4	8	3	9	1	10	3
11	2	12	4	13	4	14	5	15	2
16	3	17	3	18	5	19	1	20	4
21	1	22	1	23	4	24	2	25	3
26	5	27	1	28	5	29	3	30	3
31	2	32	2	33	5	34	4		